맨살에 어울리는 자연스러운 색조의 베이지 원착
폴리우레탄 탄성섬유「LYCRA®T-906H」

도레이 오페론텍스(주)(TORAY OPELONTEX)는 베이지 원착 폴리우레탄 탄성섬유인「LYCRA®T-906H」를 새롭게 개발하여 판매를 시작하였다. 본 제품은 착용감과 활동성이 우수하며, 광택을 억제하여 맨살에 어울리는 자연스러운 색조를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원사이다. 2016년 7월 도레이 메디컬(주)(TORAY MEDICAL)에서 발매된 탄성스타킹「COCOFY PLUS™」에 사용된 것을 시작으로 향후 폭넓은 용도로 전개가 예상된다.

라이크라(LYCRA®) 섬유는 이너웨어 스포츠웨어, 수영복, 청바지 등 신축성을 갖는 다양한 의류제품에 사용되는 폴리우레탄 탄성섬유 브랜드이다. 섬유의 수축하는 힘을 이용하여 탄성스타킹에 사용되며, 그 중에서도 시판품보다 강한 압박력이 필요한 의료용 탄성스타킹에는 탄성이 더 높은 라이크라 섬유가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폴리우레탄 탄성섬유는 투명하고 염색되지 않기 때문에 강한 압박력을 가진 스타킹일수록 착용 시에 신장된 상태에서 특유의 광택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림프 부종의 압박요법으로 사용되는 탄성스타킹의 경우, 환자는 의사의 진단 및 지도에 따라 일상적으로 착용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광택을 억제한 자연스러운 색조의 탄성스타킹이 없었다.

「LYCRA®T-906H」는 이러한 과제에 부응하기 위해 개발된 폴리우레탄 탄성섬유이다. 도레이 오페론텍스(주)는 도레이 메디컬(주)과 함께 일본 탄성스타킹 제조업체인 토코(주)(TOKO)와의 협업을 통해 광택현상을 분석하고, 원착기술에 의한 폴리머 개발과 제품시험을 거듭하여, 광택을 억제하고 맨살에 어울리는 자연스러운 색조의 베이지 원착사를 제품화하는데 성공하였다.

「LYCRA®T-906H」는 탄성스타킹 처럼 강한 압박력을 갖는 굵은 섬도부터 범용성이 풍부한 가는 섬도까지 폭넓은 제품군을 갖추고 있다. 향후에는 원착사의 특성을 살려 다리에 아름다움을 주는 플레인 스타킹이나 속옷 등 이너 웨어로의 전개도 예상된다.

<제품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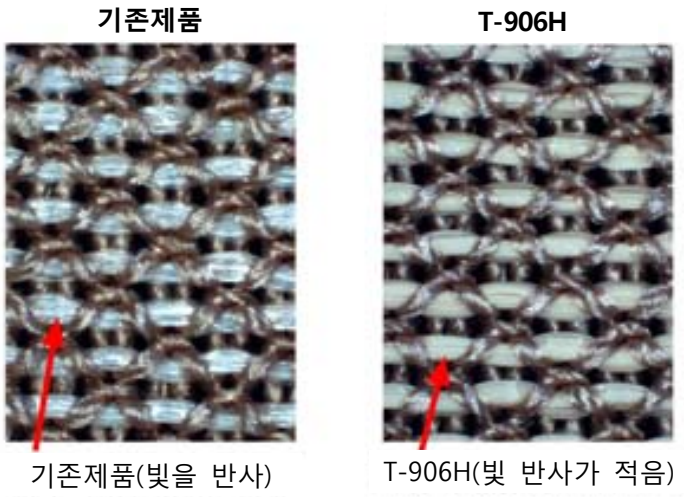
▷ 제품명 : LYCRA®T-906H

▷ 용도 : 스타킹, 양말, 신축성 보호대, 속옷, 파운데이션 슬립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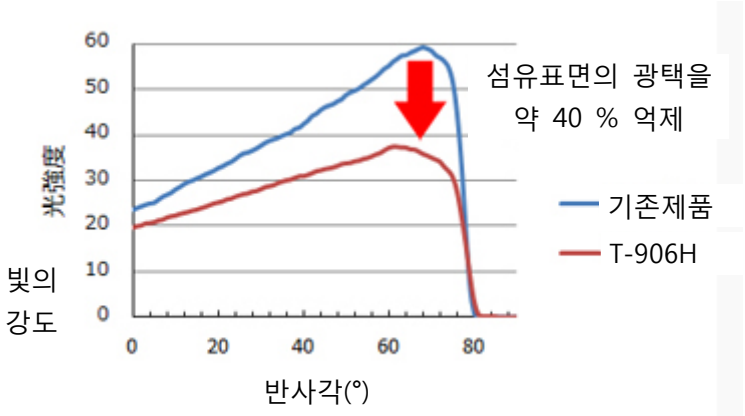
▷ 섬도(decitex) : 17, 22, 33, 78, 200, 285, 395

▷ 특징

- 베이지 원착 폴리우레탄 탄성섬유
- 광택을 억제하여 맨살에 어울리는 자연스러운 색조
- 활동성 우수, 착용 및 탈의가 용이한 신축성
- 범용 타입의 폴리우렌탄 탄성섬유에 비해 부드럽고, 신축성 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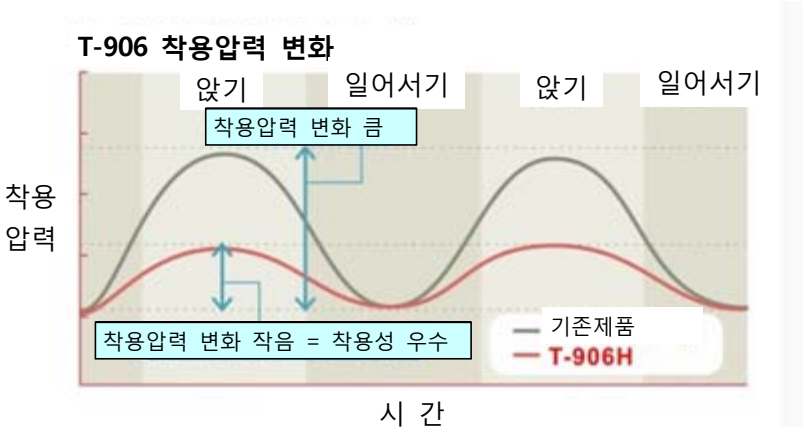


<그림 1> 편성물 원단 광택 비교



<그림 2> 광택(반사) 강도 비교

<그림 3> 최종제품의 광택 비교



<그림 4> LYCRA®T-906H 제품의 착용압력

♠ TORAY Homepage News (2016년 7월 4일)